


뇌졸중으로 쓰러지지 않는 비법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는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또는 그 반대로 뇌혈관이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고, 따라서 뇌 기능이 저하되어 갑자기 쓰러지거나,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일본의 구니와께 시에 있는 양로원인 게이쇼엔에서 여러 노인들이 쓰고 있던 비법이 세상에 알려져서 일본 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수 천 명의 사람들이 실험해 본 결과, 이 비법을 사용한 사람은 한 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한다.

후쿠오카 지방 소재 양로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후 A그룹에서는 상기 비법을 적용하고, B그룹에서는 자연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정기간 이상 관찰한 결과, B그룹에서는 다수의 중풍환자가 발생했으나, A그룹에서는 단 1명의 환자도 발생치 않았다고 한다. 1차 중풍이 온 사람들도 약간의 회복기가 있었으며 이 회복기에 상기의 비법을 적용하면 재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신비의 약은 평생에 단 한번의 복용만으로 다시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지 않게 된다고 한다. 이 자료는 일본 후쿠오카 시내 국민학교 교장회의에서 배포된 것을 입수해 번역한 것이다. 



신비의 약 만드는 법

(1인분 기준)

<재료>

1. 계란, 유정란 1개를 흰자위만 사용
2. 머구(머위) 잎의 즙 : 작은 스푼 1스푼 (3잎 정도). 잎 뒤에 털이 있는 것은 효과없음.
3. 청주(정종) : 작은 스푼으로 3스푼(소주는 안됨)
4. 매실즙 : 매실(우메무시) 1개를 씨를 빼고 즙을 낸다. (반드시 청매실일 것 : 익은 것은 약효 떨어짐)

<만드는 순서>

1. 계란 흰자를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나무 젓가락으로 150회 정도 같은 방향으로 젓는다.
2. 머구잎 즙을 넣고 50회 정도 젓는다.
3. 그 다음 청주(3스푼)를 넣고 30회 정도 젓는다.
4. 마지막으로 매실 즙을 넣고 20회 정도 젓는다.

<주의사항>

1. 반드시 순서대로 하고, 쇠붙이에 닿으면 안 되며, 복용 후 30분 이내는 물과 음식을 절대 먹지 말 것.
2. 틀니나 의치가 있는 분들은 빨대를 이용할 것.
3. 적정 시기 : 5월 말경

- 출처 : Daum

